

유아기 어머니의 안보건관련 지식에 대한 연구

김혜금 · 이옥진*

동남보건대학 보육과, *동남보건대학 안경광학과
(2007년 5월 19일 받음, 2007년 6월 15일 수정본 받음)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부모를 위한 안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건관련 지식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유아교육기관 2곳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어머니 139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이 개발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연구한 결과, 어머니들의 안보건관련 지식은 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들의 안보건관련 지식 정도는 높은 편이었지만 지식 정도에 편차가 컸다. 따라서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심도있고 체계적인 눈 건강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유아의 시력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보나 구체적인 교육내용, 방법을 제시한 실제적인 안보건교육프로그램이 부모들에게 제공됨으로써 자녀의 시력보호를 위한 올바른 개념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유아기 어머니, 안보건관련 지식, 안보건교육프로그램

서 론

모든 정보의 70% 이상이 시각을 통해 들어온다. 또한 이는 뇌에서 기록되어 인지되며 저장, 기억되어 지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학습에 기본이 되는 능력을 잃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듯 중요한 시력에 대해 평상시에는 자각을 하지 못하다가 시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야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어린 자녀가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부모들은 안타까워하고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찾게 되지만 유아기의 시력장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일반적으로 시력은 만 5, 6세가 되어야 정상시력(1.0가량)으로 완성이 된다^[1]. 그러나 시력이 발달하는 영유아 시기에 정상적인 시력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성인이 된 뒤 아무리 애를 써도 회복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들어 유아의 안과 검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어 특별한 증세가 없어도 3세 이하 유아의 안과 검진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2].

또한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실시하는 취학 전 어린이 눈검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만 3세에서 6세 유아의 22.7%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관찰 보건소와 연계되는 어린이집 이동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3] 전반적으로는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유아들의 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눈 건강에 대한 교육은 의외로 부족한 실정이다.

유아기부터 눈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력 보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시력저하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유아기 눈 건강은 부모에 의해 좌우되므로 부모가 눈 건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눈 건강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시력관련 지식 및 행태에 관한 조사연구^[4]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눈 건강에 대한 지식을 알아봄으로써 유아를 위한 눈 건강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1곳과 유치원 1곳에 다니는 만 4, 5세아의 부모 139명이었다. 연구대상의 배경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어머니의 눈 건강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

*본 논문은 동남보건대학 2006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주 저자 연락처: 김혜금, 440-71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자동 937 동남보건대학 보육과
TEL: 031-249-6523 FAX: 031-249-6520 E-mail: khg@dongnam.ac.kr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s of the subjects (N=139)

		n(%)
Age	21-30	55(39.6)
	31-40	68(48.9)
	above 41	16(11.5)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32(23.0)
	above college	107(77.0)
Job	Yes	36(25.9)
	No	103(74.1)

정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개발한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눈 건강에 대한 국내외의 문헌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질문지는 총 25문항으로 예, 아니오로 답하게 되어 있으며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을 주어 최저 0점에서 최고 25점을 받을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눈건강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은 눈의 기능, 눈의 구성, 정상시력, 시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시력교정, 바람직한 TV 시청 자세, 사시, 약시, 색맹, 색약, 시습관, 눈 건강 이상, 시력검사 시기와 횟수 등에 대한 구성되어 있다.

1차적으로 개발된 질문지를 아동학 박사 1인과 보육시설장 1인에게 의뢰하여 질문지의 내용타당도를 구하고 일부 문항을 수정한 후 경기도 소재 유치원 1곳에 다니는 만 4, 5 세 어머니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문항 난이도에 대한 어머니들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872이었다.

3. 자료수집 및 처리

질문지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1곳과 유치원 1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2007년 3월 12일에서 3월 17일 사이에 150부를 배부하여 그중 145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자료처리가 가능한 139부를 대상으로 SPSS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어머니의 변인(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따른 눈 건강 지식 정도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정과 F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어머니의 눈 건강 지식 정도

어머니의 눈 건강 지식 정도의 평균점수, 최고점수, 최저점수는 Table 2와 같다. 어머니의 눈 건강 지식의 최고점수는 22점, 최저점수는 16점이었으며 평균점수는 20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개별 문항에 있어서 대부

Table 2. Total visual health score of mothers (N=139)

Mean	SD	maximum	minimum
20.84	1.78	22.00	16.00

Table 3. Visual health knowledge score according to age of mothers

Age	Mean	SD	F
21-30	21.14	1.63	1.879
31-40	20.52	1.86	
above 41	21.18	1.79	

분 7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지만 ‘약시는 눈이 약한 것이므로 안경으로 보호만 하면 잘 보인다’는 66.1%, ‘정상시력이 형성되는 시기는 보통 5세~7세이다’는 66.9%, ‘TV 시청 시 아이가 가까운 거리에서 보려고 한다면 시력이 나쁜 것이다’는 69.7%, ‘TV를 가까운 곳에서 시청하면 근시가 된다’는 29.5%, 그리고 ‘시력검사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시력이 더욱 나쁜 것이다’는 정답률이 15.8%로 일부 문항에서의 어머니의 눈 건강 지식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눈 건강 지식 정도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비교해 본 결과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1-30세 어머니들의 평균점수는 21.14점(표준편차 1.63), 31-40세 어머니들의 평균점수는 20.52점(표준편차 1.86), 41세 이상 어머니들의 평균점수는 21.18점(표준편차 1.79)으로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눈 건강 지식 정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개별 문항은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TV를 가까운 곳에서 시청하면 근시가 된다’는 문항($F=3.70, p<.05$)과 ‘TV 시청 시 아이가 가까운 거리에서 보려고 한다면 시력이 나쁜 것이다’는 문항($F=4.07, p<.05$)에서 연령 31-40세 어머니들이 41세 이상의 어머니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력과 시청 거리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⁵⁾를 고려할 때 특히 41세 이상의 어머니들에게 TV 시청 시 바른 자세와 시청 거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25문항 중 2문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므로 눈 건강 지식 정도에 있어서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어머니의 연령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은 눈 건강 교육프로그램이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된 적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

Table 4. Visual health knowledge score according to age of mothers in items

Item	Age		21-30		31-40		above 41		F
	M	SD	M	SD	M	SD	M	SD	
If you watch TV near, you can be myopia.	.21	.41	.39	.49	.12	.34			3.70*
If child wants to watch TV near, child has poor visual acuity	.60	.49	.74	.43	.69	.46			4.07*

*p<.05

Table 5. Visual health knowledge score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of mothers

Education level	Mean	SD	t
below high school	20.84	1.54	-.019
above college	20.85	1.85	-.019

인다.

그러나 부모의 눈 건강에 대한 지식은 유아의 약시나 사시, 그 밖의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6], 부모의 연령에 상관없이 자녀의 시력보호를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눈 건강 관련 정보가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눈 건강 지식 정도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비교해 본 결과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졸 어머니들의 평균점수는 20.84점(표준편차 1.54), 전문대졸 이상의 어머니들의 평균점수는 20.85점(표준편차 1.85)으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눈 건강 지식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개별 문항은 Table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눈 건강은 정신건강과 관련이 없다’(t = -2.31, p<.05)는 문항으로 학력이 대졸이상인 어머니들이 고졸이하의 어머니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눈 건강 지식과 마찬가지로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눈 건강 지식도 25문항 중 1문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므로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눈 건강 지식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시력 관련 점수가 높게 나타난 연구^[4]와는 상이한 결과로 그 원인으로는 측정도구가 다르고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학부모였기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어머니의 눈 건강 지식에 있어서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과과정에 눈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제

Table 6. Visual health knowledge score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of mothers in items

Item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above college		t
	M	SD	M	SD	M	SD	
Visual health is not related to mind health	.65	.48	.84	.36			-2.31*

*p<.05

Table 7. Visual health knowledge score according to job of mothers

Job	Mean	SD	t
Yes	20.69	1.93	-.602
No	20.90	1.73	

시되지 않기 때문에 시력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어머니들의 경우 학력에 따른 눈 건강 지식에서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눈 건강 지식 정도의 차이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비교해 본 결과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들의 평균점수는 20.69점(표준편차 1.93), 직장을 다니지 않는 어머니들의 평균점수는 20.90점(표준편차 1.73)으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눈 건강 지식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개별 문항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상관없이 성장기에 있는 유아기의 눈 건강은 부모의 책임이 크므로^[7], 부모의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유아기 눈 건강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결 론

경기도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만 4, 5세 유아를 보내고 있는 139명의 어머니들의 눈 건강 지식 정도는 25점 만점에 최고점은 22점, 최저점은 16점이며 평균 점수는 20점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지식 정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안보건 지식 질문지의 4, 7, 9, 10번 문항에서 어머니들의 눈 건강 지식 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따른 눈 건강 지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개별 문항에서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31-40세 어머니들이 41세 이상의 어머니들보다 TV를 가까운 곳에서 시청하면 근시가 된다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지식임을

더 많이 알고 있었으며 TV 시청 시 가까운 거리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자녀의 시력이 나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눈 건강이 정신건강과 관계가 있음을 대졸이상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들이 고졸이하의 어머니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수원 소재의 유아교육기관 2곳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고 측정 도구가 표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무작위로 표집을 하여 표집 자체가 가지고 있을 편파성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추후연구에서는 눈에 대한 사전교육 유무, 눈 관련 자료 검색 유무, 자신의 시력장애 유무 등의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어머니들의 눈 건강에 대한 지식 정도는 높은 편이었지만 문항별 지식 정도에 있어서 편차가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볼 때, 어머니들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상관없이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심도있고 체계적인 눈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유아의 시력보호를 위

한 다양한 정보나 구체적인 교육내용, 방법을 제시한 실제적인 안보건교육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안보건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지식을 형성하고 자녀의 시력저하를 예방하는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신진아, “안기능과 임상굴절”, 한미의학, 서울, pp. 22(2003).
- [2] 김정환, 박성희, 신환호, “3세아의 안과적 고찰”, 대한안과학회지, 37(12):182-189(1996).
- [3] 최계원, 구분술, 이해영, “2003년 한국 취 학전 아동 시력 검진결과”, 대한안과학회지, 47(1):112-120(2006).
- [4] 김설이, 강혜영, “일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과 학부모의 시력관련 지식 및 행태에 관한 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1):141-150(2002).
- [5] 신희선, 오진주, “학령기 아동의 시력저하 실태 및 관련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8(2):164-221(2002).
- [6] 김민섭, 구분술, 김신자, “전국 만 3세-6세 취학전 아동에 대한 안과검진”, 대한안과학회지, 44(4):971-981(2003).
- [7] 김규성, “취학전 아동의 조기 시력검진 사업”,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1):99-102(1998).

Mother's Knowledge of Eye Health-related for Young Children

Hye-Gum Kim and Ok-Jin Lee*

Department of Child Care Education, Dongnam Health College

*Department of Optometry and Vision Science, Dongnam Health College

(Received May 19, 2007; Revised manuscript received June 15, 2007)

This study examined prevailing parents' knowledge of eye health for young children. 139 mothers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Mothers had general eye health knowledges regardless of their age, education level, and job, but they had less knowledges about children's eye health in some item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and materials for eye health as well as a need to provided for young children's parents.

Key words: mother for young children, eye health-related knowledge, eye health education program

<부록> 유아기 어머니의 안보건 지식 질문지

1. 눈의 기능은 외부의 빛을 수용하여 물체의 형태와 색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1) 예 (2) 아니요
2. 눈은 각막, 수정체, 망막, 유리체 등의 안구와 그 주변의 부속기관(눈물기관, 결막, 눈꺼풀 등)으로 이루어졌다.
(1) 예 (2) 아니요
3. 정상시력이란 안경 등의 교정을 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시력(약 1.0 정도)을 말한다.
(1) 예 (2) 아니요
4. 정상시력이 형성되는 시기는 보통 5세~7세이다.
(1) 예 (2) 아니요
5. 유전적 요인이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 예 (2) 아니요
6. 환경적 요인이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 예 (2) 아니요
7. 근시, 원시, 난시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교정될 수 있다.
(1) 예 (2) 아니요
8. 안경을 착용하면 시력이 더 나빠진다.
(1) 예 (2) 아니요
9. 시력검사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시력이 더욱 나쁜 것이다.
(1) 예 (2) 아니요
10. TV를 가까운 곳에서 시청하면 근시가 된다.
(1) 예 (2) 아니요
11. TV 시청 시 아이가 가까운 거리에서 보려고 한다면 시력이 나쁜 것이다.
(1) 예 (2) 아니요
12. 독서를 할 때 눈 건강에 바람직한 거리는 약 30 cm이다.
(1) 예 (2) 아니요
13. 컴퓨터 사용시간 및 자세가 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 예 (2) 아니요
14. 눈의 질환은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예 (2) 아니요
15. 눈 건강은 전신건강과 관련이 없다.
(1) 예 (2) 아니요
16. 편식은 눈 건강에 해로우며 홍당무, 비타민A 등은 눈 건강에 이로운 음식이다.
(1) 예 (2) 아니요
17. 글을 모르는 영유아의 시력검사는 할 수가 없다.
(1) 예 (2) 아니요
18. 유아의 사시(사팔)는 시력에 영향을 주므로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1) 예 (2) 아니요
19. 약시는 눈이 약한 것이므로 안경으로 보호만 하면 잘 보인다.
(1) 예 (2) 아니요
20. 색맹, 색약은 유전된다.
(1) 예 (2) 아니요
21. 평상시 물체를 볼 때 나타나는 시습관(눈을 찡그리거나 머리를 기울이고 보는 등)으로 시력변화를 알 수 있다.
(1) 예 (2) 아니요
22. 눈 건강의 이상으로 집중력 감소, 두통, 눈물흘림이 나타날 수 있다.
(1) 예 (2) 아니요
23. 눈 건강 이상이 학습능력 저하, 심리적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1) 예 (2) 아니요
24. 유아의 시력검사는 잘 보이지 않거나 아플 때만 하면 된다.
(1) 예 (2) 아니요
25. 시력검사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예 (2) 아니요